
월간 일본 동향

2021년 6월

본 자료를 활용하실 경우, 해외수산협력센터
(044-868-7833)로 문의/확인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일본 수산 동향

- | | |
|----------------------------|----|
| (1) 전국어업협동조합 연합회 통상 총회 개최 | 01 |
| (2) 일본 고래류 연구소, 조사용 드론 개발 | 03 |
| (3) 상업 포경 재개 후, 밍크고래 첫 양륙 | 05 |
| (4) 수산청, 참다랑어 TAC 확대 제안 예정 | 07 |
| (5) IOTC, 일본에도 황다랑어 규제 | 08 |
-

일본 수산 동향

(1) 전국어업협동조합 연합회 통상 총회 개최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 연합회 (전어협) 은 일본 정부의 수산정책에 대해 현장·실무적인 관점에서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6월 중에 통상 총회를 개최, 올해 사업계획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 일본 전국 어업 협동조합 연합회는 온라인으로 통상 총회를 개최하여, (1) 일본 정부에 대한 코로나19 대책 요청, (2)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 처리수 해양방류에 대한 반대 입장을 특별 결의로 채택
- 작년 12월에 시행한 개정 어업법 등 수산 개혁도 언급, 자원관리를 전제로 한 순환형 어업 구축을 목표로 어업 관계자와 하나가 되어, 수산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
- 일본 정부는 내년 수산기본계획 갱신을 위해 “모든 세대가 활약할 수 있는 순환형 생산 구조”실현을 위한 개정 어업법 운용을 강조해왔음
 - 전어협은 이에 대한 정책 제언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업 관계자에 대한 설비 투자, 수입이 감소한 부분에 대한 보상 등을 계속해서 올해 사업 계획으로 정리하여 일본 정부에 호소해갈 방침
- 키시 회장은 전어협 통상 총회에서 코로나19의 어업에 대한 영향은 기존에 경험한 적이 없을 정도로 힘든 것으로, 어민이 안심하고 생산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예산 편성을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

-
- 작년 12월 시행한 개정 어업법 등 수산 개혁도 언급, 자원관리를 전제로 한 순환형 어업 구축을 목표로 어업 관계자와 하나가 되어 스스로 개혁을 제대로 진행해가야 한다고 주장
 - 코로나 대책과 관련된 특별 결의에서는 코로나19의 악영향이 어민들의 경영 노력 성과보다도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
 - 어가 회복 판촉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일본 정부에 요청
 - ALPS 처리수에 대해서는 해양 방류에 대한 반대 의견을 재차 표명
 - 국민의 불안 불식을 위한 설명과 안전성 담보, 어민들의 경영 계속, 처리수 보관 계속 등을 정부에 요청
 - 해면 이용에 대해 일본 정부의 지침에 입각한 적절한 운용, 어종별 수량 관리에 관해서는 연안 어업의 특성에 따른 방법을 요구
 - 각 현의 어협 계통 조직의 행동 계획 실현 지원, 인재 육성, 미국 EU 싱가포르 등의 양식어 공수나 냉동 가공품 컨테이너 수출을 증가시키는 등을 추가적으로 계획하고 있음

출처 : 미나토 신문

일본 수산 동향

(2) 일본 고래류 연구소, 조사용 드론 개발

일본 고래류 연구소는 포경, 목시 조사 등을 통해 고래 자원을 조사하는 연구기관이다. 일본의 포경 재개에 따라 고래류 자원 조사 연구 움직임이 한층 더 활발해졌다.



- 일본 고래류 연구소는 선상에서 고래류를 조사하기 위한 드론 “ASUKA (개사)改四”를 개발한다고 발표
- 선박의 계기류나 극지의 지자기 등의 영향을 받아도 전파 장애가 잘 발생하지 않고, 배에 몰아치는 해풍을 받아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선상 발착을 위한 설계, 고래 조사뿐만 아니라 다른 어업에서의 어장 탐색 등에도 활용 가능성을 확대해볼 수 있음
- 동 연구소가 가지는 무선이나 기상학, 항해학, 선박 광학 등에 관한 노하우를 중소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활용, 해당 드론 개발에 성공

- 이 드론은 풍속 20노트로 통상 운용이 가능하며, 40노트에서 수평 비행이 가능
- 광범위한 고래류를 빠짐없이 관측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음
 - 51km 해상 자율 비행이 검증되어 선상에서 넓게 해면을 조망 가능
- 조사선이 들어가기 어려운 얇은 해역에서도 조사가 가능해, 고래가 작거나 파도가 높아 분기된 부분을 찾기 힘든 곳에서도 고래 어체 영상을 포착하기 쉬움
- 동 드론은 연유를 사용하지 않아 선상 화재 위험도 적음
- 현재는 드론에 부착한 메모리 카드를 통해 영상을 확인하지만, 1~2년 안에 실시간으로 영상을 모니터할 수 있게끔 만들 계획
- 과학조사뿐만 아니라 고래, 회유어, 돌고래를 포획하는 어업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출처 : 미나토 신문

일본 수산 동향

(3) 상업 포경 재개 후, 밍크고래 첫 양륙

상업 포경이 재개된지 3년 째로 일본 수산청에 따르면 올해 밍크 고래 포획 쿼터는 120마리, 아바시리 바다에서는 7월 말까지 33마리 포획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홋카이도 아바시리에서 24일 밍크 고래 첫 양륙
 - 아바시리 앞바다에서는 작년 8월에 시작한 포경이 높은 해수온 등이 원인으로 부진했기 때문에, 올해는 포경업자가 시기를 앞당김
 - 아바시리 근해에서는 7월 말까지 33마리 포획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아바시리 시에 따르면 아유카와 포경 (미야기 현 이시노마키 시)과 시모마치 수산, 합계 2척이 조업하고 있음

-
- 오후 5시 무렵, 앞바다 약 25km 로 체장 5.4m, 무게 1.4톤의 암컷 밍크 고래를 포획
 - 시내에서 해체해 고래 고기는 경매에 부칠 예정

출처 : 미나토 신문

일본 수산 동향

(4) 수산청, 참다랑어 TAC 확대 제안 예정

일본 수산청은 고급 초밥 재료로 인기가 높은 태평양 참다랑어 어획 쿼터 확대를 다음 달 하순에 국제회의에서 제안할 방침을 굳혔다.

-
- 일본 수산청은 다음달 개최될 국제회의에서 TAC 확대를 제안할 예정
 - 일본 수산청은 고급 초밥 재료로 인기가 높은 태평양 참다랑어 어획 쿼터 확대를 다음 달 말에 국제회의에서 제안할 예정
 - 번식 능력이 있는 친어가 회복 경향이기 때문에 쿼터 증가를 위한 환경은 정비되었다고 주장
 - 하지만 자원 보호를 중시하는 미국이 난색을 표명할 가능성이 높아, 조정은 난항을 보일 것으로 보임
 - 일본 수산청은 개최한 어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쿼터 확대를 요청하는 의견이 잇따랐음 (6.18)
 - 구체적인 쿼터 증가 폭을 조정하여, 참다랑어 자원관리를 협의하는 중서부태평양 수산위원회 (WCPFC) 북소위원회 등에 제안할 예정
 - 참다랑어는 난획으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 소형어 (30kg 미만)과 대형어 (30kg 이상)으로 나눠 15년부터 국제적인 자원 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출처 : 일본 수산청 보도자료

일본 수산 동향

(5) IOTC, 일본에도 황다랑어 규제

IOTC (인도양 참치위원회) 연례회의가 6.7-11일 온라인 회의로 개최되었다. 난획, 과잉 어획 상태인 황다랑어의 '22년 자원 관리 조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어획량이 5,000톤을 초과하는 12개국·지역에 대해 12년 수준으로 21% 삭감
- 일본을 포함한 '17-19년 평균 어획량이 2,000-5,000톤인 국가와 지역에 대해서는 '17-19년 최대 어획량 이하로 제한
 - 지금까지 어획량 규제의 대상이었던 일본은 4,002톤 (잠정치) 이하로 제한됨
- 현행 조치로 공해에서의 황다랑어 어획량이 '14년 수준으로 5,000톤을 초과하는 한국, 인도네시아, 대만 등의 국가 및 지역을 대상으로 어획량을 선망 '14년 대비 15% 감소, 연승 10% 감소하는 관리 조치를 실시
 - 일본은 대상에서 제외
- 이번 조치로 지금까지 공해에 한정되어 있던 어획량을 EEZ도 포함 시키게 됨
 - 이번에 새롭게 21%의 삭감 대상이 되는 부분은 14년의 어획량 또는 '17-19년의 평균 어획량이 5000톤을 초과하는 국가·지역으로 EU, 인도, 인도네시아, 몰디브, 오만, 대만 등의 12개국과 지역

-
- '17-19년의 평균 어획량이 2,000톤 미만인 국가는 2,000톤 이하로 제한하기로 결정
 - 집어 장치인 FADs 배치나 회수를 지원하는 선망 지원선에 대해서는 선망 10척 당 3척까지로 제한하기로 함
 - 일본은 10척 미만이기 때문에 대상 외
 - 일본 수산청에 따르면 19년 일본선의 조업 수는 연승이 50척, 선망이 3척, IOTC 다음 회의는 내년 5월 중순을 예정하고 있음

출처 : 미나토 신문